

宗教 定義의 批判 (四)

哲學博士 金永羲

『宗教는 野蠻時代의 遺物이다.』 --라고 定義를 내인다. 그것이 萬若 野蠻時代에 난 것이니까 우리 가티 文明한 사람은 必要하지 안타하면 가장 現代科學을 잘 理解하는 이들이 宗教 認識을 是認하는 것을 엇지하며, 그것이 萬若 野蠻時代의 產物이니까 無條件하고 신타하면 反問할 것은 우리의 모든 思想, 藝術, 道德, 科學치고 어느 것이 野蠻時代부터 繼續하지 안어왔는가? 『宗教는 知的 癡醉劑이다.』 --라고 한다. 卽 우리는 우리의 理知를 쫓까지 動作식혀 우리의 生을 發揮식하지 안코 幻像인 信仰에 陶醉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信仰이라는 것을 빙자하고 우리는 最上의 神을 미드니 남달리 理知를 엇겟다 하지 안코 다만 우리의 不絶한 努力으로 우리의 理知的 能力을 發揮식하려함이다. 우리는 理知에 나는 모든 疑□을 信仰으로 덤허버리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理知를 쫓까지 조차 차저가는 바이다.

『宗教는 不自由하고 不公平한 利害가 相反되는 階級이 存在할 새의 遺物인 바는 잘 안다. 搾아서 資本主義가 자취를 감출 새 宗教도 根絶될 바도 잘 안다.』라고 或은 定義한다. 그러나 이 定義는 宗教의 發生條件을 말할 뿐이고 宗教가 무엇인지 그 속몽치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안는다. 더욱 그 發生條件마저 正當한 理解를 맞지 못하였다.

宗教는 한 □術主義, 道德觀念, 社會風俗, 經濟制度에 外的으로 附屬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包含한 삶의 目的과 活力인을 알아야 한다. 엇더한 時代的 思想이나 制度와 宗教를 同一視하면 그는 人類의 文化史를 無理解하는 臆測이다. 그야 勿論 時代的 思想이나 制度에 ㅈ라 宗教生活에 變遷이 잇섯슬 것이다. 그러나 人類歷史가 茫□하든 새로부터 發展하여 온 宗教를 特別히 엇더한 思想이나 制度와 엇지 同一視하면서 그 思想, 그 制度가 잇는 새 ㅈ까지만 잇다 하랴?

『宗教는 美的, 論理的, 倫理的 經驗보다 特히 區別할 수 잇는 精神的 經驗

이다.』라고 或者는 主張한다. 그러나 이 定義는 넘어나 無□定하게 『精神的 經驗』이라 함을 主張한다. 엇더한 方式의 精神的 經驗인지 말하지 안는다. 더욱 宗教의 經驗이 반드시 倫理的, 美的, 論理的 經驗을 除外한 것인지 疑問이다. 차라리 倫理的, 美的 要素가 全部 包含된 사람으로서의 經驗이 宗教 生活이 아닌가? 한거름 더 나아가서 個人的 內的 經驗 뿐이 아니라 外的으로 發表되는 것 亦是 宗教生活의 一面임을 이저서는 아니된다. 社會를 睨나 서의 모든 □□을 버서난 □坐的의 經驗이 아니라 個人的 宗教經驗이 圓滿히 發現되는 活力으로서의 實行的 宗教를 사람은 渴望하는 바가 아닌가?

『宗教는 個人이나 團體가 自己들의 利益이나 運命에 無上한 支配를 가진 줄로 認識하는 權力이나 權力者들에게 對한 嚴格한 社會的 態度이다.』 --라고 『푸렛』 教授는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 定義 亦是 肉血的 宗教經驗의 內幕을 把持하였는지 疑問이다. 宗教는 嚴格한 社會的 態度 뿐이 아니라 神인 最上 實在와 調和하는 神秘的 經驗 --即 사람이 神의 扶助로서 贖罪的 向上을 바더 삶의 氣運을 맞고 그 氣運을 自己의 實行的 生活로 表現식히는 것 이겠다. 더욱 宗教生活의 對□은 無上의 權力이나 權力들이 아니라 그 權力을 가진 主體者나 그 主體者들을 相對로 삼은 삶이다. 이와 가티 主體者들 말함보다 그 權力을 力說하는 것은 現代에 와서 神人同形的 最高 實在를 反對함에서 남니다. 勿論 時代 뒤진 野卑한 神人同形的 神의 觀念은 우리가 否認한다. 그러나 우리의 哲學이 主動的 主體者를 否認할 수 업스며 宗教의 神은 人格적인 實在를 要求하는 바이다. 神의 人格的 存在를 否認하는 佛敎조차 비록 主體 업는 神秘的 날반境을 目的하면서도 窸호로 엇더한 主體者의 存在를 不明確히나마 認識하게 된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神人同形的 神을 批判하면서도 엇절수 업시 엇더한 主體者를 그음그어 認識하는 바이다. 이것이 사람인 까닭에 남인 것이겠지마는 何如하든 사람의 認識인 것은 事實이다.